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는 풍토가 되기를

제어 · 자동화 · 시스템 공학회(ICASE)는 1992년 창립된 회원 수 5천명을 약간 넘는 중견학회이다. 특히 우리 학회는 전기, 전자, 기계, 화공, 우주항공 분야의 제어공학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학회지와 한글논문지, 그리고 대한전기학회와 함께 영문논문지 IJACAS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IEEE, IFAC, SICE, CAA, CAI 등과 MOU를 통해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 학회는 국제학술대회인 ICASS를 매년 가을에 개최하며, 2004년에는 태국의 학자들이 이를 유치하여 방콕에서 개최하였다. 아마도 순수 국내 브랜드의 국제학술대회를 외국인이 유치하여 자국에서 개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 생각하면 국력의 신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특히 금년에는 일본의 계측자동제어학회(SICE)와 더불어 부산 BEXCO에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공동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바쁜 한해가 될 것 같다.

강도 높은 국제화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최첨단 국가인 미국은 사람의 영혼과 관계되는 목사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와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가장 존경을 받고 생활도 넉넉하다고 한다. 이에 반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과학기술자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의 정치지도자가 이 분야 출신이라고 한다. 실제로 수년 전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부총장이 중국에서 시행하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에서 모든 성과 직할시를 통털어 성적 이 수석인 자 전원이 칭화대학에 입학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등까지 모두가 칭화대학에 입학하였다고 자랑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서울공대에서 학장을 지낸 어느 분은 서울공대의 입학자 커트라인이 한반도 최남단 의과대학의 합격자 커트라인보다도 더 낮다고 탄식을 했다. 놀라운 것은

요즈음엔 이것이 별로 놀랄 만한 사실도 아니라는 현실이다. 땅을 아무리 깊이 파도 들하고 흙밖에 나오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만들고 외국에 내다 팔아야 먹고사는 이 나라에서 말이다. 더욱이 장래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8천만 명이 먹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고민을 안고 사는 바로 이 나라에서 말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자연과학도 몇몇 분야를 빼고는 거의 고사상태에 이르렀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분야의 졸업자들에게는 별로 미래에 비전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융성에 진정으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국가의 정책 입안자나 행정가는 이 점을 정말로 통찰해 특단의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1999년 중국의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시아 자동제어학술대회(ASC)에 참석차 며칠을 상하이에 머물렀는데 이 때 중국의 CAA 연합회 회장 한푸 첸 교수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지금 한국의 ICASE 학회와 일본의 SICE 학회가 상호 교류협정을 맺고 매년 서로 학문적인 교류를 하며 더불어 공동학술대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중국의 CAA와도 매년 상호교류에 대한 그와 같은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었다. 이 때 첸 교수의 대답은 뜻밖에도 ICASE의 회원의 숫자는 얼마쯤 되는지를 먼저 물어왔다. 다소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렵잡아 한 5천 명쯤 된다고 대답하였다.

첸 교수는 웃으며 답하길 CAA회원의 숫자는 대략 20만 명쯤 되며, 상하이지역만 해도 3만 명쯤이고 베이징지역이 2만5천 명쯤 되는데 전체 20만 명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각 지역에서 대표자와 논문발표자만 모으는데도, 이 숫자도 5천 명쯤 되어 학술대회는 이 숫자가 모두 수용될 수 있는 인민대회당을 사용하고, 행사는 대략 1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진

행되며, 매년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 4년마다 CAA회장 선거 때와 시기를 맞추어 시행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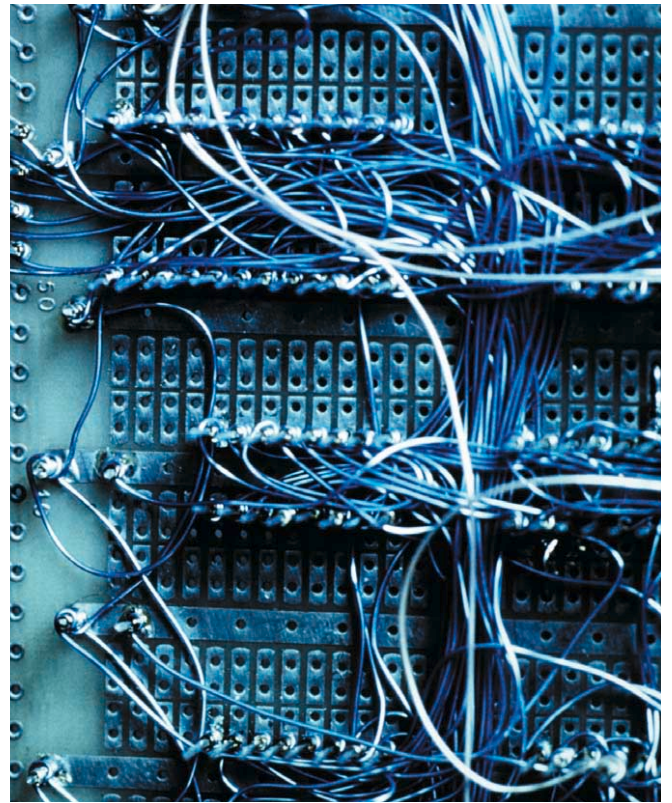
첸 교수는 상하이지역의 CAA 지부나 베이징지역의 CAA 지부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한다면 매년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충고도 아울러 해주었다.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학회인데 일개 지방의 지부와 국가체면을 걸고 학술대회를 해야 한다니 참으로 기가 꺾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고, 또한 이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는 5천명이 20만 명을 압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중국은 자국의 전문 학술분야를 국제화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대단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고 게을리한다면 아마도 멀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즈음의 대학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논문계재 학술지의 SCI 등재여부가 교수의 연구실적과 대학의 학문 활동의 척도가 되면서 세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SCI에 등재된 논문지에 실리는 논문의 편수가 곧 승진과 재임명에 필요한 첫째조건으로 간주가 되니 모든 교수가 여기에 매달리게 되고, 특히 이제 갓 교수가 된 젊은 교수는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국제적으로 SCI 인정을 받는 논문지에만 투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부분의 국내 학회의 논문지가 고사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국내 논문지에는 상대적으로 우수논문의 투고가 현격히 줄고 게재편수도 줄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편집자가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 예측하고 수년 전부터 대한전기학회와 더불어 IJCAS 영문 논문지를 SCIE에 등재되도록 노력한 결과 SCIE의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정식 SCI로 인정을 받는 일이 남아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우수논문의 지속적인 투고가 있어야 하고, 또한 투고된 논문의 인용된 횟수도 많아야 하는 난관이 있다. 어찌 생각하면 이만큼 발전한 우리 나라에 적어도 몇 개 정도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가 있어야 할 시점인데, 결국은 재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IMF 환란 이후 기업의 학회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고, 특히 최근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기업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학회가 회원의 회비와 학술행사의 등록비와 과



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도움, 그리고 기업에서의 작은 성의에만 의존하다보니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점점 영세해져간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가고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투자는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사실상 학회는 대학의 학문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구 활동에 촉매제 역할을 하며, 또한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회가 재정이 어려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거두어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가와 기업은 이를 잘 통찰해 나라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 학회를 육성하는 데 과감한 투자를 해주를 바란다. 원래 학회는 돈과는 무관한 비영리 단체이며, 더욱이 학자는 원래부터 돈 만드는 재주는 없지 않은가. ㉔



글 | 박종국 _ 제어자동화시스템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